

마그레브 식민주의 정신의학 담론의 형성과정*

김 태 희 (홍익대학교)

• 목 차 •

서론

1. 프랑스 식민주의 정신의학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
2. 마그레브 식민주의 정신의학의 제도화
3. 식민주의와 정신의학적 합리화

결론

서론

프랑스식민지 지배가 마그레브를 비롯한 아프리카지역에 끼친 정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당부분 진척되어온 반면, 이 지역 정신의학분야에서의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껏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는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한 외상 못지않게 내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무작위적인 착취수준에서 진행되었던 지배관계는 점차 체계화과정을 거쳐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8918).

유럽의 지배자들은 과학의 이름을 내세워 아프리카인들의 고유한 문화를 미신적이라 치부하였고 인종차별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해나갔다. 이때 의학은 유럽 중심적 사고를 전파하는 침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이들 지역은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의학을 발전시켜 왔으며 유럽에 앞서 정신의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성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페르시아인 무하마드 이븐 자카리야 알-라지 Muhammad ibn Zakariya al-Razi 는 ‘엘 일라이 엘 납사니 El Illaj El Nafsani’, 다시 말해 정신요법 psychothérapie이란 표현을 9세기 경 처음 사용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고¹⁾, 이후 마그레브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지역은 육체와 영혼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다 706년 다마스에 이슬람국가 최초로 비마리스탄 bīmāristān이라 불리는 병원이 세워졌는데 페르시아어에 기원을 둔 이 말은 “환자들의 집”이란 뜻이었으며, 모로코에서는 줄여서 마리스탄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한 9세기에 등장한 무하마드 이븐 자카리야 알-라지 Muhammad ibn Zakariya al-Razi 는 정신의학서적인 『영혼의 의학 Attib Arrouhani』을 저술함으로써 정신의학분야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페즈 Fez와 바그다드 Bagdad에도 비마리스탄이 세워졌고, 13세기에는 카이로에도 정신이상자들을 위한 병원이 건립되었다.²⁾ 이렇듯 수십여 년에 걸쳐 이슬람문화권의 주요도시들마다 비마리스탄들이 하나둘씩 등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무료였으며 병에 따라 각기 다른 음식과 처방이 제공되었다.

1) Douki S., Nacef F., Zineb S.B., *La psychiatrie en Tunisie : une discipline en devenir*, L'information psychiatrique, 2005, p. 50.

2) Foucault M.,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Gallimard, coll. TEL, 1972, p. 159.

이와 달리 중세까지만 해도 정신질환자들에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화형에 처했던 유럽에서는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스페인 발렌스 Valence에 정신이상자들을 위한 수용소가 카이로의 병원을 모델로 종교인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16세기에 5개의 정신병원이 스페인에 더 세워졌다.

프랑스에서는 카트린 드 메디치에 의해 샤리테 드 상리 Charité de Senlis (1601)와 샤랑통 Charenton (1644) 정신병원이 세워진 후, 루이 필립 Louis-Philippe 치하인 1838년 6월 30일에 발의된 ‘정신이상자들에 관한 법 Loi des aliénés’에 따라 각 지역마다 하나의 정신의학기관을 의무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프랑스 본토와의 지리적 근접성에 힘입어 다른 지역에 앞서 프랑스영토로 편입되었던 마그레브지역 역시도 이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았다.³⁾

그중 알제리는 1848년에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프랑스의 해외도로 편입되었으며 튀니지(1881)와 모로코(1912)가 보호령이 되었다. 하지만 아프리카지역이 순차적으로 프랑스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본토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식민지역에서 뒤늦게 세워진 정신병원은 본토에서처럼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증상의 인종적 차이를 부각시킬만한 사례를 채집하여 왜곡된 주장을 일반화하는 의도로 활용되었다. 자신들에 비해 육체적 우월성을 드러냈던 아프리카인들에 대해 프랑스지배자들은 지적 우수성을 내세우고자 했으며 몇몇 유럽의학자들은 그러한 추측을 과학적으로 포장하고자 아프리카인들의 뇌에 나타난 구조상의 문제로 지능의 차이를 이론화해나갔다. 달리 말해, 프랑스가 왜곡해온 과학

3) 비록 ‘정신이상자들에 관한 법’ 적용이 마그레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12년 튀니스학회 이후이지만 루이 필립의 법령은 프랑스 본토는 물론 마그레브지역에 있는 정신이상자들을 의학적 관점에서 처우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따라 정신이상자들에 관한 여러 의학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적 주장들은 사실 자신들의 육체적 열등의식과 식민주의지배자로서의 피해의식을 보상하기 위한 자기정당화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찰은 아프리카인들의 정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그들과 대면한 프랑스인들의 정신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유럽의 이성과 비유럽국가, 특히 인종적 차이가 확연한 아프리카의 비이성 간의 대립구도는 식민주의를 전파하는 좋은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성과 비이성을 나눌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미셸 푸코는 이미 우리에게 그 기준이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광기의 역사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동일한 유럽 내에서조차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변형되어 정신의학에 반영되어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준 바 있다. 그러나 이성과 비이성 간의 대칭적 관계는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광기의 역사는 이성의 역사의 대응물 *contrepartie*”⁴⁾이라고 인용했던 푸코의 지적대로, 비이성으로서의 광기와 이성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19세기는 물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문명과 야만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가와 국가 간의 지배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계몽주의 사상을 내세우던 프랑스가 자신들의 식민지로 남아있던 프랑스어권 마그레브지역을 어떻게 비이성의 영역으로 규정해나갔으며, 비이성의 영역에 이성적 사고를 전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문명화의 사명 *mission civilisatrice*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의학적 논리를 구축해왔는지 주목해보고자 한다.

4) Foucault M., *op. cit.*, p. 472.

1. 프랑스 식민주의 정신의학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

근대화를 향한 초입에 위치한 19세기는 다른 여타 과학 분야 중에서도 정신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프랑스(『심리 의학 연감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843), 영국(『정신과학 저널 *Journal of Mental Science*』, 1850), 미국(『정신이상에 관한 미국 저널 *American Journal of Insanity*』, 1844)에서는 이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서 프랑스는 단연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정신의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앙리 에 이 Henri Ey는 “정신의학자들 중 어떤 학파, 어떤 세대도 오늘날에 이르러 정신병리학의 중심문제를 이루고 있는 광기와 꿈, 정신착란과 환각에 관한 깊이감에 있어서 1845에서 1860년 사이의 프랑스학파에 필적하지 못했다”⁵⁾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를 표방하던 당시의 대다수 프랑스 정신의학자들의 연구조차도 온전히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동시대에 팽배하던 유럽 중심의 식민주의적 시대정신 *Zeitgeist*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들의 글들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 의학서라기보다는 소설이나 여행담에 가까울 정도로 식민지배자의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1) 문명과 야만 속에서의 정신이상의 차이

미셸 푸코는 아직 온전한 정신병원으로서의 시설이 미비했던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당시 프랑스의 “수용시설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것을 명명하자면 치료라기보다는 참회라는 말이 어울린다”⁶⁾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병자들은 범죄자

5) Henri Ey, *Traité des hallucinations*, Masson, 1973, 2 vol., p. 1233.

들과 구분 없이 수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라기보다는 악마가 깃든 존재,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중세 이래로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사람들을 바보들의 배(*Stultifera navis*)에 태워 멀리 떠나보냄으로써 이성적인 세계가 비이성의 무리들을 어떻게 배제해왔는지를 설명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 대도시에서의 정신이상자의 수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됨에 따라 외적인 원인과 치료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특히 1822년 『의학 사전 *Dictionnaire des sciences médicales*』을 집필했던 프랑스의 마르상 Marchant은 여행과 낯선 풍경이 정신병에 이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지역 환경과 정신병과의 상관성을 의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이탈리아의 로마나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역사적 유적지가 환자의 정신성을 고양하는 데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⁷⁾

한편, 프랑스 정신의학자 에스키롤 Esquirol은 『정신병 *Des Maladies mentales*』⁸⁾에서 과도한 문명화에 따른 불안정한 삶과 알코올의 과다 섭취, 지나친 근친혼 등이 유럽에서의 정신병의 주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남아메리카 지역을 여행하며 ‘야만인’들에게서 정신병이 드물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던 독일의 저명한 동식물연구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 Alexander von Humboldt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아들이며 문명화가 덜 이루어진 중국,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의

6) *Ibid.*, p. 154.

7) Marchant in Quirot B., « Faux mouvement. Voyage et psychopathologie », *Gradhiva*, 1995, p. 6.

8) Esquirol J.E.D., *Des Maladies mentales, considérées sous les rapports médical, hygiénique et médico-légale*, J.B. Baillière, 1838.

지역민들에게서는 정신병이 드물다는 점에 다시금 주목한 바 있다. 이후 에스키롤의 제자였던 자크-조셉 모로 드 투르 Jacques-Joseph Moreau de Tours는 1836년 12월에서 1837년 10월까지 터키와 소아시아, 이집트 등을 여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의 정신병자들에 대한 연구 *Recherches sur les aliénés, en Orient*』(1843)⁹⁾란 논문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자신의 중동지역 여행경험을 토대로 인종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뒤따를 인종차별론에 대한 의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전의 다른 탐험가들과 달리, 그는 각 지역에 수용된 정신이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들의 독특한 증상들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증세의 주된 원인이 문화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 문화적 환경 중에서도 이슬람 종교가 정신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가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다는 점은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로 드 투르의 이러한 ‘인상들’은 뒤따를 서구의 여러 정신의학자들에게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그대로 재인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로 드 투르는 이 지역의 정신이상자가 유럽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점을 재발견하고서 그 이유가 지역의 미발달된 ‘문화’로 인해 정신적 소모가 덜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문화와 기후는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는데¹⁰⁾ 마그레브지역의 뜨거운 기후가 그 지역 문화는 물론 사람들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으며, 중동지역의 뜨거운 기후가 신경을 자극하

9) Moreau de Tours J., « Recherches sur les aliénés, en Orient. Notes sur les établissements qui leur sont consacrés à Malte (Ile de), au Caire (Egypte), à Smyrne (Asie-Mineure), à Constantinople (Turquie) »,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843, pp. 103-132 ; reproduit et présenté par Bégué J.M., « Moreau (de Tours), ethnopsychiatre », *L'Évolution Psychiatrique*, 1990, pp. 813-831.

10) *Ibid.*, p. 825.

여 이곳 지역민들을 멍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두뇌와 감각이 둔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인들의 지적 무능력에 대한 의학적 편견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로 드 투르와 유사한 주장을 우리는 그의 동료의사였던 푸르나리 Furnari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다.¹¹⁾ 그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슬람 문화권 주민들의 무기력한 지적 능력을 전제적 정부와 유목 생활, 알코올의 절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생활방식들이 정신병을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인들이 점차 서구화되어감에 따라, 특히 알코올의 해로운 효과가 퍼짐에 따라 정신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적으로 이 시기의 압생트술은 식민지 주둔 프랑스 군들을 거쳐 북아프리카인들에게 상당히 퍼져나가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병인에 대한 연구는 신경정신과학적 차이의 문제로 그 무게중심을 점차로 옮겨갔다.

2) 튀니스 학술대회 Congrès de Tunis (1912)

문화나 환경이 정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식민주의지배가 강화되면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식민지배국에 비해 이 분야 연구가 뒤쳐졌던 프랑스는 보르도 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프랑스 정신의학의 아버지 중 하나라 일컬어지는 엠마누엘 레지 Emmanuel Régis와 그의 제자들이 그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1905년 프랑스 식민지 학회와,

11) Furnari, A., 'Voyage médical dans l'Afrique septentrionale',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8, 1846, pp. 349-361.

1908년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국가의 신경정신과 학회에서는 식민지에서 의학적 처우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1912년 튀니스에서 열렸던 프랑스 정신의학자 학술대회에서 르볼 H. Reboul과 레지 E. Régis 교수가 식민지배국의 빈곤한 정신의학체계를 비판한 보고서는 마그레브지역에서의 정신의학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에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하였다.¹²⁾ 이 보고서는 “사람들은 프랑스 식민지의 신민들[피식민지배자들]에게서는 광기가 드물다고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크나큰 오류가 있다. 광기는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¹³⁾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다른 이론가들이 중동지역이 정신병이 덜하다고 주장했던 내용을 반박하며 정신병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민지에서의 정신이상자들의 관리의 허술함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이 보고서에는 크게 4가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정신이상자들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둘째로 이 의무에는 토착민 역시 포함된다. 셋째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구성원(토착민, 유럽인, 군인, 범죄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볼 때, 그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식민지에 정신의학자들을 양성하고 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보고서는 이후 식민지 정신의학의 기본지침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마그레브지역에서 정신의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앙투안 포로 Antoine Porot나 흑아프리카지역의 프랑크 카자노브 Frank Cazanove 모두에게 튀니스 학회는 식민주의 정신의학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이 학회에서 아프리카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정신병원의

12) Reboul H., Régis E., *L'assistance des aliénés aux colonies*, Masson et Cie Editeurs, 1912.

13) *Ibid.*, p. 11.

건립을 확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2. 마그레브 식민주의 정신의학의 제도화

이전까지 마그레브 지역을 여행했던 프랑스 학자들이 이 지역의 문화와 인종적 차이에 대해 기술했던 주관적 여행담들은 점차 과학적인 형식을 빌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식민주의를 옹호했던 프랑스 의학자들은 문화적 차이를 인종적 차이로 치환해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식민주의적 세계관을 정당화해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앙투안 포로가 등장하게 된다.

1) 앙투안 포로 Antoine Porot와 알제학과 École d'Alger

인종과 문화를 다소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구했던 이전의 연구들이 프랑스식민지, 그중에서도 알제리로 집중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앙투안 포로 Antoine Porot 교수였다. 튀니지를 거쳐 1916년 알제에 있는 19군단 정신과장으로 파견되었던 그는 알제의 마이요 Maillot 병원에서 알제리인들의 생리학적 열등성을 의학적으로 이론화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알제 의과대학의 첫 정신과교수로 부임하기도 했던 포로는 후에 파농이 재직하게 될 블리다-조앵빌 Blida-Joinville 정신병원을 개원하는 데도 깊이 관여했다. 당시 이 병원에서는 알제와 콩스탕틴, 오랑에 거주하는 유럽인과 알제리인 모두가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튀니지와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에도 유사한 병원이 있었지만 앙투안 포로나 프랑츠 파농 같은 유명 의사들이 거쳐 갔던 이곳은 이 분야에서 가장 모

범적인 사례로 남아있었다. 1910년부터 튀니스 병원에서 근무했던 앙투안 포로는 초창기에는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다 그곳에 처음으로 정신병동을 만들었으며 1912년에는 튀니스 학술대회를 조직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그는 알제대학의 정신의학분야를 이끌면서 1918년 『이슬람 정신의학에 대한 논의들 *Notes de psychiatrie musulmane*』이란 논문을 통해 알제학과 *École d'Alger*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프랑스 식민주의 정신의학의 지침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접근을 암시하는 제목과 달리 포로는 이 논문에서 주관적인 묘사에 치중하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슬람 토착민의 심리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이들은 정신적으로 우리와 매우 다른 부분이 발달되었으며 변화무쌍하고 모순되기도 하다. 또한 개인과 집단적인 모든 생활에 침투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들과 종교적이고 운명론적인 형이상학이 이들의 정신성을 다스리고 있다”¹⁴⁾고 주장하며 이슬람 토착민들의 심리를 몇 줄로 간단히 요약하는 식으로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1차 대전 중에 프랑스군 내에 징집되어 활동했던 알제리인들을 직접 관찰하기도 했던 앙투안 포로는 유럽인들보다 알제리인들이 정신병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자발성과 야망이 결여된 알제리인들은 상대적으로 유럽인들에 비해 정신병적 요소가 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인종차별적 정신의학이론을 재생산해냈다. 다만 이전의 이론들에 과학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했던 포로 교수는 “알제리인은 피질이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알제리인들은 마치 열등한 척추동물처럼 간뇌의 지배를 받는다. 설사 피질이 존재한다 해도 그 기능은 아주

14) Porot A., “Notes de psychiatrie musulmane”,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n° 74, 1918, p. 378.

미약하며, 존재의 역학 속에 거의 연관되지 못한다”¹⁵⁾고 주장함으로써 프랑스인들과 알제리인들은 뇌의 구조에서부터 이미 우열이 가려진다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과감하게 펼친 바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제자였던 아리 Arrii와 함께 작성한 논문 『알제리인들에게서의 범죄적 충동성 *L'impulsivité criminelle chez les Algériens*』(1932)에서 알제리인들이 체질적으로 범죄적 충동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종과 범죄성을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설명하였고, 1939년에는 쉬테르 Sutter와 함께 쓴 논문 『북아프리카 원주민의 원시적 특성과 그것이 정신병리학에 미치는 영향 *Le primitivisme des indigènes nord-africains ; ses incidences en pathologie mentale*』(1939)에서 원주민의 삶은 본래 식물적이고 본능적이고 주로 간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뇌 구조의 특수성, 혹은 신경 중심이 위계화하는 과정의 특수성’, 즉 두뇌 발달의 열등함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감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2) ‘원시적 특성 Primitivisme’ 이론

포르의 급진적인 식민주의적 관점은 ‘알제 학파’ 정신의학자들의 ‘원시적 특성 Primitivisme’ 이론으로 점차 진화해 나가는데, 여기서 또다시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시적인 정신 발달의 특징을 보인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즉 그들의 정신활동은 주로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더 높은 단계의 정신능력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다. 의지결핍증 환자인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결여되어 있고, 노동에 대해 생태적인 욕구부진을 보이며, 직업 활동에서 세심함과 논리성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잘 하고 무례한 행동

15) Fanon F., *Les damnés de la terre* (1961), Editions La Découverte/Poche, 2002 ; 프란츠 파농,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10, p. 306.

을 서슴없이 하는 경향을 보이며, 범죄의 충동에 쉽게 굴복한다는 것이다. 포로는 제자인 아리 Don Come Arri와 아리의 제자이었던 장 쉬테르 Jean Sutter와 함께 아프리카인의 ‘원시적 특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를 빌미로 문명화를 돕는 유럽의 식민지 지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계승해나갔다. 이들이 사용한 ‘원시적 primitif’이라는 표현은 20세기 초 루시앵 레비-브뤼엘 Lucien Lévy-Bruhl이 발간한 두 편의 저서(『열등사회에서의 정신기능 *Les fonctions mentales dans les sociétés inférieurs*』과 『원시적 정신성 *La Mentalité primitive*』)에서 받은 영향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레비-브뤼엘은 당시 프랑스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시적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원시인들에게서 추론에 대한 결정적인 혐오”¹⁶⁾의 본성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성적 사고가 결핍되어 있다는 인종차별적 태도를 일반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원시적 정신성은 당시에 지식인은 물론 학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레비-브뤼엘의 주장은 현지에서의 관찰이나 임상실험을 통해 도출된 이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시 몇몇 인류학자들의 강한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이론을 추종했던 식민지 파견 정신의학자들은 그 이론적 기반에 걸맞은 증빙자료를 찾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학파 중 하나였던 알제리 학파는 튀니스 학회가 열렸던 1912년부터 마그레브국가들의 독립 이후까지도 아프리카인에 대한 정신의학 이론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포로와 장 쉬테르가 1939년 작성한 『북아프리카 토착민들의 원시적 특성 *Primitivisme des indigènes nord-africains*』

16) Lévy-Bruhl L. *La Mentalité primitive*, (1922) PUF, 1960, p. 9.

에서는 “원시적 특성은 성숙이 결여되거나 개인적인 심리 발달이 명확히 중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서양]와는 다른 삶에 논리적으로 적응한, 더 이상 발전할 것 없는 사회상황을 말한다”¹⁷⁾고 규정함으로써 원시적 특성이 특정인에 한정된 것이 아닌 아프리카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아프리카인이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럽인들의 문명화를 위한 식민지 지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 이론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 식민주의와 정신의학적 합리화

이렇듯 다른 학문에 비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양 간주되던 의학 분야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과학 못지않게 왜곡되어왔다. 더구나 유럽이 자신들의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미신적인 아프리카를 문명화하겠다는 명목 하에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내세웠던 분야인 의학이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미신적 사고를 고착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역설적이라 할만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문화적 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확인 불가능한 의학적 가설들을 내세워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려했던 것이다. 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메건 보건 Megan Vaughan 교수는 “식민주의적 의학 담론이 차이에 열중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⁸⁾고 확신한 바 있다. 결국 식민지에서의 문

17) Porot A. et Sutter J., cité in Berthelie R., “A la recherche de l’homme musulman”, *Sud/Nord*, 2007/1 n° 22, p. 136.

명화의 사명은 아프리카인들을 유럽인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동질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수 없다는 한계점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의 근거를 아프리카인들의 타고난 정신적 결함 탓으로 돌리면서 식민주의 정신의학의 논리로 그 근거를 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유럽인들이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어야만 하는 영원한 당위성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1) 문명화의 사명 *mission civilisatrice*

: 프랑스 공화국 이념과 식민주의 이념의 합리화

1870-1871년 사이에 벌어졌던 독일과의 전쟁에 패하여 알사스-로렌 지역을 독일에 내주어야 했던 프랑스는 자신들의 손상된 자존심을 다른 대륙에서나마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의 영토 확장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1792년 9월 20일 일찌감치 공화국이념을 선포했던 프랑스는 19세기 말 식민지 지배를 확대해나가야 할 상황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식민지 확장 간의 모순을 합리화시킬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그에 따라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넓혀나갔던 유럽 국가들은 피지배국을 교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문명화의 사명 *mission civilisatrice*’이라는 구실을 만들어냈다. 물론 문명화의 사명은 근대에 등장한 개념은 아니며 그 이념적 토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기독교 사상을 내세워 이교도를 교화

18) Vaughan M., *Curing Their Ills : Colonial Power and African Illnes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 12. 이 저서에서 영국령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인 메건 보진 교수가 지칭하는 ‘식민주의적 의학 담론’은 무엇보다 영국식민지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지만 인용된 이 문구에 있어서만큼은 프랑스 정신의학계의 담론상의 성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시킬 필요성을 내세웠던 중세의 십자군 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전의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기독교로의 개종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반면, 19세기 식민지 건설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왜 열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당시 유럽의 정신의학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게 된다. 물론, 문명화의 사명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선전적 효과가 뛰어난 부분은 의학이었다. 아프리카의 주술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치료하는 서양의 의사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서구문명의 우위를 드러내는 데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서구의학의 우월성은 미개한 아프리카를 계몽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이렇듯 문명과 미개, 과학과 미신이라는 대립적 사고를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던 의학은 식민주의정책을 공고히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¹⁹⁾

2) 식민지화의 심리학

유감스럽게도 이렇듯 식민주의시대에 공고화되었던 인종차별적 정신의학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후로도 아프리카 사회 전반의 모든 체계와 사고 속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앙투안 포로를 비롯한 식민주의 정신의학자들의 주장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인용되며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비교적 진보적 정신분석가로 알려졌던

19) 실제로 튀니지의 경우, 의학을 통한 식민지배가 정치적 지배에 앞서 진행되었다. 1860년대 튀니스에 창궐했던 티푸스와 콜레라 전염병을 막는다는 핑계로 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정치적 개입이 진행되었고, 모로코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프랑스는 1907년 마라케시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 프랑스의사를 군중들이 살해하자 그 배상을 빌미로 침략의 발판을 삼았기 때문이다.

옥타브 마노니 Octave Mannoni조차도 이 점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면, 기존의 식민주의적 관점이 얼마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학계에 퍼뜨려놓았는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²⁰⁾ 1925년 이래로 20여 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에 머물렀던 마노니는 현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식민지화의 심리학 *La Psychologie de la colonisation*』이라는 중요한 저서를 남겼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로서는 대단하게도 약 10만여 명이 학살당했던 1947년의 마다가스카르 저항운동을 다루면서도 정작 기존의 인종차별적 정신의학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노니는 저서에서 피지배자와 식민지배자의 관계를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에 빗대어 원주민이 ‘중속 콤플렉스 *complexe de dépendance*’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 인식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가 무작정 자립할 경우 이들은 사회적 감정 *sentiment social*이 결여되어 오히려 중속 콤플렉스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아이가 차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자립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자칫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열등 콤플렉스 *complexe d’infériorité*’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노니는 이러한 이론이 마다가스카르의 식민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직 혼자 자립할 만큼 성숙치 못한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폭동을 일으킨 마다가스카르의 ‘1947년의 사건’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그는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모든 민족들이 식민지화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들만이 식민지화되는 것이다”라는 그의 문구 속에는 아프리카인들의 중속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프랑스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켰을 따름이라는 식민주

20) Cf. 옥타브 마노니와 프란츠 파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프란츠 파농과 탈식민의 정신분석」(김태희, 『프랑스학 연구』, 62호, 2012, pp. 585-607)을 참조.

의적 관점이 강하게 배어있었다. 마노니는 “마다가스카르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근원적인 열등성을 지니고 있다”²¹⁾고 주장하며 기존의 서구학자들이 내세웠던 인종차별이론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이것은 앞서 앙투안 포로의 주장과 같은 인종차별적 관점과 연속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식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차별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츠 파농의 등장은 프랑스 정신의학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된다.²²⁾ 그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주의 정신의학과 탈식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신의학자들이 내세웠던 아프리카인들의 인종적 결함이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에 따른 결과물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던 파농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끔찍한 범죄, 인간의 기능을 훼손하고 통일성을 파괴한 병리학적 범죄를 저질렀다”²³⁾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의 정신적 문제는 왜곡된 지배사회를 만들었던 식민지배자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전까지 아프리카인들을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해오던 기존의 이론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탈식민을 사회정치학적 차원을 넘어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이 분야에 중요한 이론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의 이론이 강한 설득력을 지녔던

21) Mannoni O., *Psychologie de la colonization*, Ed du Seuil, 1950, p. 85, p. 32.

22) 파농이 다른 분과가 아닌 정신과를 선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치적 인 성향에 참여하길 마다하지 않았으면서도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읽지 않았지만 프로이트와 라캉과 같은 정신분석학 분야에 흥미를 기울여왔다는 점은 그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Cf. Cherki A., *Frantz Fanon, Portrait*, Editions du Seuil, 2000 ; 알리스 셰르키, 『프란츠 파농』, 이세욱 옮김, 실천문화사, 2002, pp. 68-69.).

23) Fanon F., *Les damnés de la terre* (1961), Editions La Découverte/Poche, 2002 ; 프란츠 파농,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10, p. 320.

이유는 그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아프리카인들과 프랑스인들을 모두 치료했던 실천가였다는 점이었다.²⁴⁾ 그러나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어떠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을까? 마그레브를 비롯한 아프리카 고유의 관점에서 정신의학을 재정립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고유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부터였다. 응구기 와 씨옹오 Ngugi wa Thiong'o는 『마음의 탈식민지화 *Decolonising the Mind*』(1985)에서 정신적 탈식민지화가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육체적 독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강한 어조로 역설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마그레브지역의 정신의학에 대한 재조명은 이 지역의 정신성을 재건하는 토대가 되는 작업이라 할만하다.

결 론

우리는 본 연구에서 19세기 이래로 태동했던 마그레브지역 내에서의 프랑스의 식민주의적 정신의학의 기원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24) 파농에 의해 촉발된 이슬람문화권 마그레브지역에서의 정신의학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장-미셸 베게 Jean-Michel Bégué가 학위논문으로 1989년 제출한 『알제리에서의 프랑스 정신의학 1세기 *Un siècle de psychiatrie française en Algérie (1830-1939)*』에서 알제리에서의 식민지 정신의학을 처음으로 온전히 재조명해 보 여줌으로써 그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으며, 베게와 함께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중 하나였던 로베르 베르틀리에 Robert Berthelie는 『알제리 이슬람교도와 마주한 정신의학자들과 정신의학 *Psychiatres et psychiatrie devant le musulman algérien*』(1979, pp. 139-160)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슬람 문화와 정신의학의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여러 후속 연구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파리 10대학의 르네 콜리니옹 René Collignon 교수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의 비교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발전시켜오면서 이를 프랑스 내의 이슬람문화권 이민자들에게까지 그 논의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종과 문화에 대한 차별적 요인들이 어떠한 과학적 담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으며 그 영향력을 유지해왔는지 살펴보았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정신의학은 그 기술적 한계로 말미암아 실험중심의 과학이라기보다는 이론중심의 학문이라 할만하다. 당시 의학은 임상실험을 통해 환자들의 병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밝혀내기보다는 환자들의 증상이나 태도에서 얻은 인상을 토대로 병인을 유추하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였던, 마그레브인들의 두뇌에 대해서 제기한 전두엽의 미발달 문제는 정신의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몇몇 유럽의학자들이 아프리카대륙을 여행하던 중에 느꼈던 단편적인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반복적으로 차용되어왔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는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타문화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내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자신들이 통치하는 지역민들의 타고난 정신적 미성숙의 문제를 제기해오던 프랑스의학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배 이전시대에 이미 자국의 광인들을 정신적 미숙아(어린이, 미숙아, 금치산자 등)로 간주했던 태도가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그대로 재생산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이론은 유럽의 대부분의 정신의학자들에게 일반적인 견해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프로이트조차도 이점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었다. 『토템과 터부 *Totem et tabou*』에서 원시인들과 신경증 환자들, 어린이들과의 심리적 상관성을 바탕으로 정신분석이론을 발전시켜나갔던 프로이트는 당시의 다른 정신의학자들의 의견과 동일선상에 위치해있었다.²⁵⁾

25) 『토템과 터부』에서 프로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원시종족들에 대해 논하면서 “원시종족과 신경증환자와의 유사성이 상당히 깊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Cf Freud S., *Totem et Tabou*, (1927) Editions Payot 2001, p. 225.

뤼시앵 레비-브뤼엘 Lucien Lévy-Bruhl (1922) 또한 아프리카의 ‘원시적 정신성 *mentalité primitive*’을 주장하면서 원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뇌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예견하도록 하는 추상적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서구의 지성이 아프리카인들보다 우월하기에 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민주의적 관점을 강화해나가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렇듯 당대의 뛰어난 정신의학자들 역시도 식민주의가 당연시되던 시대적 정신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까닭에 이 시대 정신의학이론들은 과학적 체계에 따른 연구라기보다는 식민주의이념에 따라 자기합리화과정에 따라 왜곡된 이론체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정신의학계를 주도하던 앙투안 포로나 캐로터스와 같은 의학자들의 논문에서는 아프리카환자들의 개별상담을 토대로 한 심리분석보다는 이들의 외적 반응의 관찰에 따른 추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연구가 의학적 분석보다는 시대적 선입견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당시 정신의학자들이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외적 현상을 오로지 정부의 식민주의적 관점에 맞춰 해석하려 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질서를 표방하던 것이 성채였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의식이 성곽이”²⁶⁾되었다는 푸코의 말대로, 이 시기 프랑스 본토는 이성의 성채가 되었으며 바다 건너 아프리카는 비이성의 대지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성과 비이성을 나누던 이전의 가시적인 울타리는 명목상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문화적 경계를 나누는 이성과 비이성, 자아와 타자, 지배국과 식민지 간의 보이지 않는 구분은 그만큼 더 깊숙이 내재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파농이 반세기 전에 고발했던 프랑스의

26) Foucault M.,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Gallimard, coll. TEL, 1972, p. 26.

식민주의적 정신의학 이론이 아프리카 해방이 오래전 완성된 오늘날에도 프랑스어권 사회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민주의 정신의학이론을 옹호했던 알제리 학파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알제리 독립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정신의학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의 관점이 지금까지도 암묵적으로나마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참고문헌

1. 정신의학 관련 일반문헌

Foucault M.,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Paris, Gallimard, coll. TEL, 1972.

Freud S., *Totem et tabou. Quelques concordances dans la vie d'âme des sauvages et des névrosés* (1912-1913), in Freud S., *OEuvres complètes. Psychanalyse. Volume XI. 1911-1913*,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5, pp. 189-385.

_____, *Totem et Tabou*, (1927) Editions Payot, 2001.

Quirot B., “Faux mouvement. Voyage et psychopathologie”, *Gradhiva*, 1995, pp. 3-26.

2. 아프리카 식민주의와 정신의학

Bégué J.M., “Genèse de l'ethnopsychiatrie. Un texte fondateur de la psychiatrie coloniale française : Le Rapport de Reboul et Régis au Congrès de Tunis en 1912”, *Psychopathologie Africaine*, 1997, XXVIII, pp. 177-220.

Bennani J., *La psychanalyse au pays des saints. Les débuts de la psychiatrie et de la psychanalyse au Maroc*, Casablanca, Éditions Le Fennec, 1996.

_____, “Psychiatres et psychiatrie devant le musulman algérien”, *L'Évolution Psychiatrique*, 1979, XLIV, pp. 139-160 ; reproduit et mis à jour in *Psychopathologie Africaine*, 1980,

- XVI, pp. 343-369.
- _____, “A la recherche de l’homme musulman”, *Sud/Nord*, 2007/1 n° 22, pp. 127-146.
- Berthelie R., *A la recherche de l’homme musulman*, Sud/Nord/1 n° 22, pp. 127-146.
- Boigey, “Étude psychologique sur l’Islam”,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908, VIII, pp. 5-14.
- Carothers J.C., “Frontal lobe function and the African”, *Journal of Mental Science*, n° 97, 1951, pp. 12-48.
- _____, *The African Mind in Health and Disease: A study in Ethnopsychiatr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3.
- Chérif A., “Étude psychologique sur l’Islam”,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909, pp. 353-363.
- _____, *Frantz Fanon, Portrait*, Editions du Seuil, 2000 ; 알리스 세르키, 『프란츠 파농』, 이세욱 옮김, 실천문화사, 2002.
- Collignon R., “Some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psychiatry in french speaking West Africa. The example of Senegal”, *Psychopathologie Africaine*, 1995-1996, XXVII, pp. 37-51.
- _____, “Contributions à la psychiatrie coloniale et à la psychiatrie comparée parues dans les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Essai de bibliographie annotée”, *Psychopathologie Africaine*, 1995-1996, XXVII, pp. 265-326 ; 1997, XXVIII, pp. 221-269.
- _____, “La psychiatrie coloniale française en Algérie et au Sénégal”, in *Tiers-Monde*, 2006, tome 47 n° 187, pp. 527-546.

- Esquirol J.E.D., *Des Maladies mentales, considérées sous les rapports médical, hygiénique et médico-légale*, Paris, J.B. Baillière, 1838.
- Ey H., *Traité des hallucinations*, Masson, 1973, 2 vol.
- Fanon F., *Peau noire masques blancs*, Ed. du Seuil, 1952 ;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옮김, 인간사랑, 2003 ;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옮김, 문학동네, 2014.
- _____, *Les damnés de la terre* (1961), Editions La Découverte/Poche, 2002 ; 프란츠 파농,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10.
- _____, “le ‘syndrome nord-africain’”, *Esprit*, février 1952, pp. 237-251.
- _____, “Racisme et Culture”, *1er Congrès des Ecrivains et Artistes Noirs*, septembre 1956.
- Furnari, A., “Voyage médical dans l’Afrique septentrionale”,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8, 1846, pp. 349-361.
- 김태희, 『프란츠 파농과 탈식민의 정신분석』, 『프랑스학 연구』, 62호, 2012, pp. 585-607.
- Kraepelin E., “Psychiatrie comparée” (1904), *Psychopathologie Africaine*, 1995-1996, XXVII, pp. 259-263.
- Lévy-Bruhl L. *La Mentalité primitive*, (1922) PUF, 1960.
- Mannoni O., *Le racisme revisité. Madagascar, 1947*, Paris, Denoël, coll. L’espace analytique, 1997.
- _____, *Psychologie de la colonization*, Ed du Seuil, Paris, 1950 ; traduit en anglais in *Prospero & Caliban, The psychology of colonization*, Ann Arbor Paperback, 1990.

- _____, “The Decolonisation of myself”, in *Clefs pour l’Imaginaire ou l’Autres Scène*, Ed. du Seuil, 1969, pp. 290-300.
- Meilhon, “L’aliénation mentale chez les Arabes. Études de nosologie comparée”,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896, III pp. 17-32.
- Moreau de Tours J.-J., “Recherches sur les aliénés, en Orient. Notes sur les établissements qui leur sont consacrés à Malte (Ile de), au Caire (Egypte), à Smyrne (Asie-Mineure), à Constantinople (Turquie)”,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843, pp. 103-132 ; reproduit et présenté par Bégué J.M., « Moreau (de Tours), ethnopsychiatre », *L’Évolution Psychiatrique*, 1990, pp. 813-831.
- Porot A., “Notes de psychiatrie musulmane”,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n° 74, 1918, pp. 377-384.
- Porot A. et Arrii C., “L’impulsivité criminelle chez l’indigène algérien ; ses facteurs”,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932, n° 90, pp. 588-611.
- Porot A. (dir.), *Manuel alphabétique de psychiatrie clinique et thérapeutique*, Troisième édition remaniée et mise à jour,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 Reboul H., Régis E., *L’assistance des aliènes aux colonies*, Paris, Masson et Cie Editeurs, 1912.
- Sutter J., “Quelques aspects de la Psychogenèse en milieu indigène Nord-Africain”, *Maroc Médical*, 1949, pp. 215-216.
- Vaughan M., *Curing Their Ills : Colonial Power and African Illnes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Wa Thion'o N., *Decolonising the Mind*, James Currey Publishers,
1985 ; 응구기 와 씨옹오, 『마음의 탈식민지화』, 박혜경 옮김,
수밀원, 2006.

« Résumé »

La psychiatrie coloniale dans la région maghébine francophone

KIM Taehee
(Université Hongik)

Dans cette étude, nous voulons aborder l'origine de la psychiatrie coloniale dans la région maghébine qui a commencé dès 19ème siècle, et nous interroger sur la façon dont le racisme et la discrimination culturelle s'organisent au nom de la science médicale.

Après leurs voyages à l'Afrique, les psychiatres européens supposaient que la culture, l'environnement et la religion de cette région pourraient causer quelques troubles mentales aux indigènes africaines, et ce qui sera accepté comme des données scientifiques par les psychiatres à venir. En plus les psychiatres coloniaux tels que Antoine Porot insistaient sur le sous-développement du lobe frontal chez les Africains sans aucune preuves ni analyse médicales, n'appuyant que sur leur expérience. En réalité, cette opinion médicale aujourd'hui absolument considérée insensée a servi au colonialisme de l'époque où domine l'impérialisme. Grâce à cette racisme médicale se justifiait la domination des européens prétendus plus 'intellectuels' sur les Africains imbéciles. Cela veut

dire que l'ideologie du conlonialisme a influencé inconsciemment sur beaucoup de scientifiques. Sans distinguer les différences culturelle et les maladies mentaux, ceux-ci considéraient les Africains comme primitifs ou sauvages qui n'arrivaient pas encore au niveau de la cultre européenne, ce qui sert à justifier leur mission civilisatrice. Pourtant mettant en cause le colonialism médical avec des contre-exemples, Frantz Fanon a révélé son absurdité caché sous l'apparence de scientificité. Sa réaction nous rappelle que nous devons nous demander sans cesse si notre théorie 'scientifique' n'est pas contaminée par des idées fixes contemporaines qui ne sont pas toujours correctes.

주제어 : 식민주의 정신의학, 알제학과, 앙투안 포로, 문명화의 사명,
비마리스탄

Mots-clés : psychiatrie coloniale, École d'Alger, Antoine Porot,
mission civilisatrice, bîmâristân

논문 투고일 : 2014년 10월 28일

심사 완료일 : 2014년 11월 22일

게재 확정일 : 2014년 11월 28일